

곤고도

곤고도(金剛堂)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에게 특별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쇼샤잔 산에서 수행을 시작했을 무렵, 쇼쿠 대사는 일찍이 이 장소에 있었던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인 후젠인(普賢院)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가 후젠인에 살고 있었을 때, 금강살타보살이 강림했습니다. 금강살타는 깨달음에 이르려는, 흔들리지 않는 기원을 상징하여 천태종(天臺宗)에서는 중심적인 존재인 부처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금강살타는 금강계와 태장계를 나타내는 신성한 인상(印相)(부처나 보살이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 열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동작들)을 쇼쿠 대사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만다라는 밀교 수행의 기본인 형이상학적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후젠인에 있던 가야부키 지붕(역새나 갈대를 사용하여 인 지붕)의 불당이 여기로 이전되고, 금강살타와 쇼쿠 대사의 기적적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한 금강살타보살상이 모셔졌습니다. 일찍이 건물의 내부에는 보살상이 모셔진, 금빛으로 빛나는 감실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보살상은 1359년에 나라의 도다이지 절에서 불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고순이 조각한 것으로서 현재는 지키도(食堂)의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544년에 곤고도는 현재의 기와 지붕 건물로 개축되었고, 천장에는 다양한 신성한 사물과 생명체가 아름다운 빛깔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교에서 종종 깨달음을 표현하는 두 마리의 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다른 부분에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는 불사의 가릉빈가가 날면서 숭고한 목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